

전문가 코칭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명지대 경영대학 김재구 교수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Q1.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주요 이슈들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을 들었다. 최근의 윤리경영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CSV(공유가치창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공헌의 주요이슈 및 활동내용도 바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이 사회문제해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에게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들을 예측하게 하였는데, 교육시스템 부족, 부실한 공공거버너스, 기후변화, BOP(Bottom Of Pyramid, 저소득층) 지역 대상 제품개발 및 마케팅과 마이크로 크레딧, 에너지 공급안정, 위생 및 공중보건 등을 들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향후 기업은 사회공헌을 기업의 전략과 연결하여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고경영진은 물론 모든 임직원들이 준법·윤리경영을 지켜서 깨끗하고 공정한 기업운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회공헌으로 기업의 부패나 비리를 덮으려는 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해야만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적 투자나 경영전략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키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Q2.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요?

선진기업들은 자선적 기부활동에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지나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뒤쫓아 가는 한국기업들도 사회적기업, CSV(공유가치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사회적가치를 융합해나가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가치와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 사명이 사회혁신과 연관되어 정립되고, 최고경영층부터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사회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리고, 그 가치를 측정하여 보여 줌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회혁신전략을 펼치기 위해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시장 진입인지, 매출 증대인지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자사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자본시장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더 성과가 분명한 사회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물류업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화주기업의 횡포, 물류업계 종사자 노동 문제, 환경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물류 산업이란 화주(생산·제조업체)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출처: 2014/2015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 2014, 김성우 우정경영연구소)

물류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 기업의 독과점, 화주기업의 횡포, 열악한 노동 환경,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화주-물류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완화하고 친환경 경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녹색 물류를 실천하는 등 정부와 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 산업의 주요 이슈인 화주기업과의 공생발전, 물류 산업의 노동 사각지대, 지속가능한 녹색물류에 관하여 정부와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자.

◎ 이슈 1. 화주-물류 기업, 공생발전 전략

물류 산업의 다단계 계약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물류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2년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생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제1차 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발의하였다. 표준계약서는 운임 산정 및 지급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 물류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제3차 위원회에서 화주-물류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계약체결 및 이행, 물류용역 대금 설정, 물류용역 관련 부대작업에 대한 사항, 보복 조치의 금지 등의 권고사항을 담아 물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과 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기업의 인식전환(Switch), 화주기업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Strengthen), 경제단체 및 유관협회의 이해 조정과 정책 건의(Suggest), 정부의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Support)으로 이루어진 '공생발전 4S 전략'을 제시하는 등 상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일감 몰아주기 자제,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소폭 감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된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대행 관련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다”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물류 등 창고 운송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0년 46.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3.5%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회사 내부거래 공시무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252>

코리아 쉬핑 가제트

[사례] 물류의 상생 시너지

A 기업과 B 물류는 7년 째 협력한 사업파트너로서 2014년 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제 1회 물류분야 공생발전 모범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두 회사는 표준계약서('12년 12월)를 도입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화주-물류 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송시스템을 주 2회 배송에서 매일 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검품을 감소와 함께 보관면적을 축소시켜 물류관련 비용을 절감하였다.

*출처: Industry Solution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46134>

◎ 이슈 2. 물류 산업의 노동 사각지대

물류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화주-물류 기업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4~16시간 일을 하고 있다.

물류 종사자들의 노동실태가 심각함을 인지한 정부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휴게소와 공영 차고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기사 안전문화화'를 위한 안전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운송 업무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에서 물류 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D 기업의 그린 SCM

D 기업은 2009년 선사 최초로 탄소 배출량 계산기(Supply chain carbon calculator)를 개발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오고 있다. 컨테이너의 모든 운송구간별 이산화탄소 발생을 홈페이지에 출발지, 목적지, 무게를 입력해 각 운송 구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산출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계산기는 CCWG(Clean Cargo Working Group)에서 제시한 탄소 배출량 계수 계산 방식에 근거하여 D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계수로 사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계산기 이용한 CO₂ 산출방법

*출처: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권익위, 전경련

◎ 결어

물류 산업은 화주기업의 횡포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물류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생 전략 4S'를 고안하여 화주-물류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류 업계 NGO들은 노동환경 개선, 녹색 물류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물류 산업이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협력을 중시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4/2015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 2014, 김성우 우정경영연구소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권익위, 전경련

KOTI 물류브리프, 2015 1/4분기,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특별기고1-물류산업, 공생발전 기조 확산시키자, 2014, 물류신문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3, 한진해운

코리아 쉬핑 가제트

Industry Solution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252>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46134>

<http://www.redian.org/archive/904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101329081&code=940100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79>

<http://blog.naver.com/seaweed3/22032>

최근 윤리경영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촌 1품' 통해 인니 지역경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1월 17일 자카르타 상그릴라호텔에서 '2015 한국-인도네시아 사회공헌활동(CSR)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기업이 특정 지역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CSR 활동인 '1촌 1품 협력단'을 발족하여 기존에 행해지던 기부 중심의 CSR보다 지속가능하고 자율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형 C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롯데마트, CJ인도네시아,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이글 등이 있으며 이 기업들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우수 CSR 시상식도 진행 됐는데 '산업진행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LG상사, 롯데마트, 삼익약기가, '공유가치(CSV) 창출' 부문에는 CJ인도네시아, 오스템, 삼성전자, 코린도가, '선린우호증진' 부문에는 포스코 인니법인이 선정됐다.

출처: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5111717542493958>

그린피스, 한국판 '그린 스코어카드'를 발표하다

그린피스는 11월 12일 한국판 '그린 스코어카드'를 발표하였다. 그린 스코어카드는 방문한 웹사이트가 어떤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또한, 전력사용량과 어느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 경우,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운영사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현재, A 점수를 받은 국내 웹사이트는 없으며 네이버, 구글, 유튜브가 B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는 국내 웹사이트들이 운영되는데 사용되는 국내 데이터센터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국내 IT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와 접목한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고 기업들도 이를 실천하고 있다. 삼성 SDS와 KT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린피스에 공개했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카카오는 그린피스가 보내온 공식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이며,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해 프리쿨링,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가산점을 두고 선정 중이라고 밝혀왔다.

출처: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Check-your-favorite-website-green-scorecard/>

기업 내부 감사에 스마트 기술 활용해야

전경련은 11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내부 감사활동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기업에서도 스마트폰·SNS·웹하드 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비밀 보호와 조직 내부통제 관련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내부감사에 전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는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 내규 등에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포스코, 교보생명, 신세계,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카드, CJ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

해외 윤리경영 동향

UN 반부패협약총회, 여섯 번째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

UN 반부패협약총회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부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다룬 주요 안건은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자산회복(asset recovery) 방안과 이를 실행에 옮길 법률적 지원에 대한 것이다. UN 반부패협약총회는 부패 예방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반부패 교육을 이행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UN 반부패아카데미(UNCAC)에서 이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국제 반부패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는 등 반부패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출처: IACA Newsletter 2015 4th, IACA(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COSP/session6/V1506029e.pdf>

中 사회과학원, 사회책임(CSR) 기업 순위 공개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11월 1일 베이징에서 '2015년 기업 사회책임백서 및 중국기업 300대 사회책임지수'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책임(CSR) 기업 순위를 공개하였다. 2009년부터 발표된 기업 사회책임지수는 기업책임,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 등 네 가지를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300대 기업의 전체 평균은 34점, 100대 외자기업의 평균은 26.1점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중국 내 국영·민영·외자기업 등 300개 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이 중국 내 외자기업 중 처음으로 사회책임(CSR) 기업 5위에 올랐고, 현대차는 27위를 기록했다. 또 100대 외자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1위, LG가 3위, 현대차가 4위, 포스코가 6위를 기록해 10위권에 4개 기업이 포진하면서 한국은 국가별 점수에서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11011724112700>

지속가능보고서 국제기구 GRI, 인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GRI G4(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와 'Linkage Document'를 발표하였다. Linkage Document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평가 기준 투명성을 증진하고 UN에서 정의한 인권과 지속가능보고서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RI 회장 Michael Meehan은 "전 세계의 정부와 비즈니스는 기후변화와 인권을 고려하여 불평등,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인권이 앞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니세프(UNICEF)와 GRI는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12월 11일 파리에서 'Gold Standards and Climates'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GRI-launches-resource-to-enable-greater-transparency-on-human-rights.aspx>

행사 이모저모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제3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지난 11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등이 공동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식'이 개최되었다. 200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으로 출발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그동안 기업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을 넘어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랑받는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사랑받는 기업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올해에는 총 25개 기관 및 개인(아모레퍼시픽,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가정신 부문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시상도 이루어졌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8/0200000000AKR20151118132900848.HTML?input=1195m>

2015 아시아 사회공헌 포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15 아시아 사회공헌 포럼’이 ‘지속가능한 아시아 사회공헌 협력방안 모색 ‘Go with ASIA’를 주제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1.10(화)부터 이틀간 개최됐다. 우리나라 사회공헌 기업 및 NGO/NPO 단체들의 능동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국,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국내외 사회공헌분야 정부 및 NGO 관계자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내기업 및 NPO/NGO 관계자들이 해외 초청 강연자와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출처: http://m.wngo.kr/a.html?uid=80389&page=3&menu=&sc=&s_k=&s_t

◎ 국내외 행사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향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약속과 기여 선언, 기업 리더십 및 탄소배출 비용 가격 책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과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기후변화당사국총회
-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 8일(화)
- 장소 : Climate Generations Space, Paris-Le Bourget, France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617&uid=1307&mod=document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사회적 책임(CSR) 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UN과 함께 하는 해외진출기업 사회적책임(CSR)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포럼에서는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주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내용과 동향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착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주최 : 주 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12월 1일 (화) 14:00 ~ 17:00
- 장소 : 양곤시 Sedona 호텔, Mindon Room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386&uid=1306&mod=document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 윤리경영 리포트에서는 이탈리아의 최근 윤리경영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와 기업의 제도 및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한다.

지난 1992년 안토니오 디 피에트 검사가 주도하여 부패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사법 처리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 부패 척결작업이 종료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탈리아는 고위급 정치인의 부정부패, 마피아의 사법부 침투 등 사회 각계에서 비리 스캔들이 터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가 '부정부패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2014년 마피아 조직이 로마 시청과 결탁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정부패 사범 형기 강화, 공소시효 기간 연장, 부정 축재한 재산 압류 등 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사회 전반의 부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제도 및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이탈리아 부패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이탈리아는 175개국 중 69위(43점)에 랭크되어 투명성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근 10년 동안 이탈리아의 부패인식지수는 20점 가까이 추락하여 40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청렴시스템평가(I-NIS; 유럽 13개국 정부의 법률적인 기반과 실제 청렴성과를 평가) 결과 이탈리아는 55.04%(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임)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치, 산업,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최고 감사기구(79%), 사법기관(75%), 선거관리단체(75%)의 청렴 시스템은 수행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기관(33%), 언론(38%), 반부패기관(38%)은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EU 집행위 보고서(2014)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97%가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며, 88%는 공직에 진출하려면 뇌물과 연줄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부정부패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기업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마피아 공모, 위증, 세금 포탈, 경찰과 법관에 대한 뇌물 및 부패 등 화려한 형사 재판의 전적과 혐의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 기간이 공소시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한 이탈리아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혐의를 무효화하였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로마 시청과 결탁한 마피아 캐피털

2014년 로마시청 공무원 등과 결탁해 수백만 유로의 공적 자금을 빼돌린 일명 '마피아 캐피털'에 가담한 조직원, 정치인, 사업가,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2015년 11월 5일에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마약거래나 강탈을 일삼는 마피아 조직과 달리 수년 동안 로마 시청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로마시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이탈리아 건설사 Saipem SpA의 뇌물 및 금품 수수 혐의

2011년 이탈리아 건설사 EniSpA의 자회사인 Saipem SpA는 나이지리아의 Bonny Island 지역에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한 나이지리아 건설사 TSKJ와의 계약과정에서 뇌물과 금품을 건네 2012년에 재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2011년 12월에 외부에 알려지자 이들은 2012년 이탈리아 정부 조사 당국에 구체적인 부패 경로를 조사받고 처벌을 받았다.

*출처: Exporting Corruption? Country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 2012, TI

◎ 이탈리아 정부의 반부패 윤리경영 정책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재건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마피아와 정치인이 결탁하여 만성적인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이 20% 이상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온라인 정보공개 플랫폼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 Machine'을 구축하여 이탈리아 공공 기록과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법안을 개정 중이며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한 부패방지 톨인 Integrity Pact를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정부에서 활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윤리 관련 정부부처>

의회(Parliament)	• 가장 강력한 윤리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상황을 조사하고 정치적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결탁한 부정부패가 없는지 조사하며 청문회 형태로 추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피아 감시 의원(Parliamentary Commission on the Mafia):	• 마피아 부패를 전담으로 담당하며 이탈리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들의 동향을 살펴 발생하는 비리를 파헤치고 처벌한다.
사법 기관(Judicial bodies)	• 부패방지법의 시행력을 평가하고 부패방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이탈리아 생명 윤리 위원회(Italian National Biotech Committee)	• 건강과 과학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인간 존중의 사상을 실천한다
행정 조사 기관(Administrative investigative bodies)	•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파악하고 시민단체의 부패 감시자들과 협업하여 행정 관할 밖의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특별 조사 기구(Special investigative bodies)	• 전문적인 윤리관련 기구로서 모든 윤리 관련 문제를 다루고 평가한다.

<이탈리아 부패 방지법>

- 뇌물과 부정부패로 이탈리아 경제적 손실이 1년에 600억 유로에 달하면서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11월에 190 조항의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공공 분야(Public Sector)와 사적 분야(Private Sector)로 나누어 법률을 세분화함
 - 공공 분야(Public Sector): 반부패 계획 채택,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제, 임직원을 위한 법률 제정,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등 뇌물 및 부패 예방을 위한 공적인 제제를 가동
 - 사적 분야(Private Sector): 뇌물 수수 혐의, 개인적인 부정부패,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통제함
- *출처: Italy adopts new anti-corruption law, 2012, Norton Rose Fulbright.

◎ 이탈리아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

이탈리아 기업의 윤리경영 이행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전 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he statute of "Stewardship, Italian Association for Ethical Management of Resources"는 이탈리아 기업에게 필요한 윤리경영 자료를 지원하는 협회로 2012년에 출범하여 윤리경영 관련 포럼, 세미나, 컨설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Stewardship의 첫 번째 세미나의 명칭은 "Ethics management the model of Stewardship"으로 기업 내부관계자들만이 아는 은밀한 윤리 문제와 사례를 공유하여 윤리경영 혁명을 꾀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건강보험공단과 SAPIENZA 대학교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이탈리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 이탈리아 CSR「Action Plan」

이탈리아 CSR「Action Plan」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SR'이라는 환경 중심의 CSR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가, 고객, 주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CSR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다변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더 나은 사회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키자"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CSR 아젠다의 주요 이슈를 담은 'Reference Points'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특히, ISO 14001 인증, OSHAS 18001 인증 등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SR 비영리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성공적인 CSR 기업 사례>

교도소에 회사를 설립한 이탈리아 3대 기업

이탈리아 기계 분야 3대 기업인 IMA, 마르체시니 그룹, GD SpA가 협업하여 이탈리아 도차 교도소에 'FID'라는 기계 회사를 설립하였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갇생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FID는 기존의 갇생을 위한 기술교육과는 차별화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도소 내의 독자적인 기업이다. 복역 후 경제적인 사회활동이 쉽지 않은 수감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탈리아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http://zaerin.tistory.com/22>

Encouraging CSI in Italy, 2007, Harvard Univ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15/201412150500017/201412150500017_1.html

◎ 결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이탈리아 정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윤리적 행태와 부패를 척결하는데 주력하고, 총 6개의 윤리관련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윤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로비스트 등록제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의 업무수행에서 횡령, 뇌물,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청렴한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Lobbying in Europe, 2015, TI

Stewardship programs in Italy, 2013, Stewardship

Exporting Corruption? Country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 2012, TI

Italy adopts new anti-corruption law, 2012, Norton Rose Fulbright

National Integrity System Assessment Italy, 2012, TI

Encouraging CSI in Italy, 2007, Harvard Univ

Trust in Government Ethics Measures in OECD countries, 2000, OECD

이탈리아는 어디로 가는가?, 1996, Rosario

Musillami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002700088.HTML?input=1195m>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15561&year=201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6/23/0606000000AKR20140623144900009.HTML>

<http://zaerin.tistory.com/2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15/201412150500017/201412150500017_1.html

윤리경영 스터디.

윤리경영 스터디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사회공헌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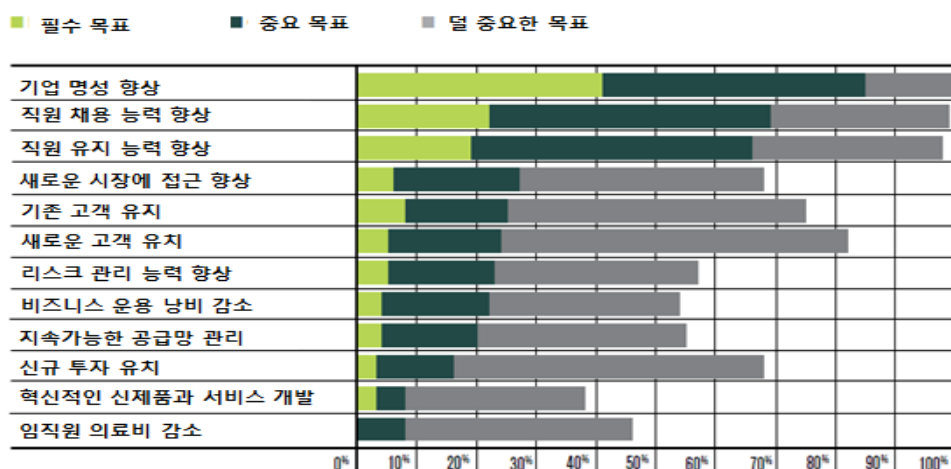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문제를 일시적으로 위안하는데 머물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비영리적인 행위를 전부 포함하는 것(사회공헌정보센터)'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대 기업에게 이러한 비영리적인 행위 즉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출처: Community Involvement Efforts Contribute to Business Goals, The Corporate Citizen, fall 2015 issue 14)이며 사회와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영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다수의 존경받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공헌 방안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회공헌 사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인권, 노동 실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은 사회공헌을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사회취약계층 보호, 재능기부 형태의 무료 교육, 기업 특화사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매칭그랜트(기프트) 제도, 임직원 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 사회공헌활동이 선택적 경영 이슈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식되었다면 현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톤 대학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기업의 평판 향상'을 필수 목표로 꼽은 기업이 40%를 넘고 '직원 채용 능력 향상'은 20%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신시장 접근성 향상'(약 7%), '기존 고객 유지'(약 8%), '새로운 고객 유치'(5%) 등의 사유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목적>



*출처: Community Involvement Efforts Contribute to Business Goals, The Corporate Citizen, fall 2015 issue 14

이렇듯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무형의 가치(명성, 우수 직원 채용 및 유지 등)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새로운 시장 접근성, 신규 고객 유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개국 40개 기업(GE, IBM, P&G, 인텔, 도요타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조건을 전략, 구조, 문화 및 소통 차원에서 인터뷰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성공적인 CSR 기업 사례>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투자로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과 노하우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

포지셔닝(Positioning): 기업 업종과 관련이 높은 분야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주의 이익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조직통합(Integration): 최고위층이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함으로써 사회공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사회 및 CEO 직속으로 사회공헌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

실행 관리(Review):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성과지표를 발굴하거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작업을 실시

참여(Involvement):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조직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성화

투명성(Transparency):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모니터링

*출처: 기업 사회공헌의 본질: SPIRIT, 2011, 삼성경제연구소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공헌

전경련에서 발간한 사회공헌백서(2014)에 따르면 주요 기업 234개사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사회공헌 규모는 2조 8,114억 8,330만 원으로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비용은 12년 3.37%에서 3.76%로 상승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꾸준히 사회공헌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참여형 자율 프로그램 형태의 사회공헌 비중이 70.8%를 기록해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은 기부, 자원봉사 등을 넘어 소외계층 지원, 복지 인프라 후원, 미래자원 육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전적인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략적 사회공헌, 글로벌 사회공헌, 공유가치창출(CSV)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략적 사회공헌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으며, 이후 선진기업들은 새로운 차원의 공헌활동을 모색하였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과 사회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달성이다.

3大 전략적 사회공헌

- 공유가치형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해결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

- 시장창조형 (빈부격차 해소에 초점)

가격이 높아 저개발국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지불 가능한 가격대로 생산하여 판매

- 문제해결형 (의료격차 해소에 집중)

경제성은 낮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

*출처: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사업과 사회공헌의 조화, 2009, 삼성경제연구소

전략적 사회공헌 기업사례 - 반도체 제조업체

[목적]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정보격차 줄이기'라는 전략적 사회공헌 목표를 수립함

[내용]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내 200개의 학교에 노트북과 디지털 커리큘럼을 정부지원금으로 무상 제공하며 교사가 사용하는 화이트보드를 노트북과 네트워크로 연결해교사와 학생이 과제물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기대 효과]

반도체가 주요 업인 기업이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IT 전문 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아프리카 시장에 브랜드를 널리 알려 마케팅 홍보 효과를 거둠

*출처: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사업과 사회공헌의 조화, 2009,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사회공헌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글로벌 시대의 지역사회에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고객과의 신뢰 구축,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은 사회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이 진출한 시장 및 진출 예정인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차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공헌 기업사례 - 전기기기 제조회사

[목적]

의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국가에 주목한 후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자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함

[내용]

현지 수준에 맞게 조작성 용이하고 소모품 및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제조하고 지원하여 현지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NGO, 대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기 솔루션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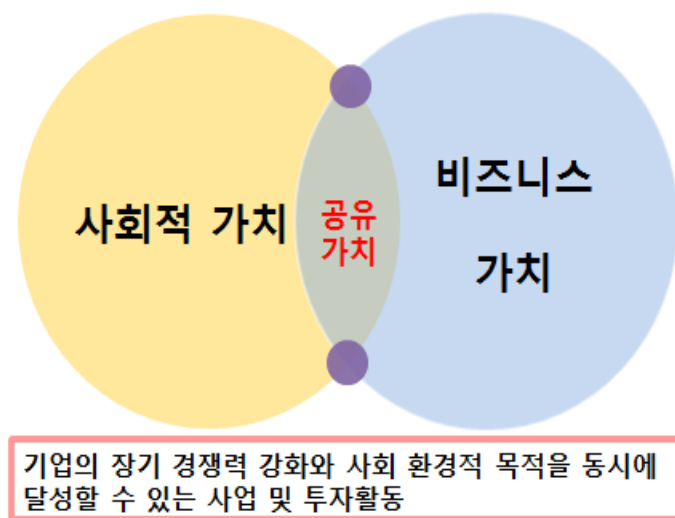
글로벌 사회공헌을 통해 해당 기업의 아프리카 매출액은 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지원을 받은 르완다의 상급병원 후송률이 42%에서 3%로 감소함

*출처: 해외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2013, 삼성경제연구소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하버드대 경영학과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11년 발표한 공유가치창출(CSV)이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단순히 기부하는 활동을 벗어나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공유가치창출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수 CSV 실천 기업·기관을 발굴 및 시상을 통해 미래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CSV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내 산업계의 CSV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산업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주최하여 '제1회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수여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다.

*출처: DBR January Issue 1, 2015, 동아일보사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사례 - 식품 제조회사

[목적]

'영양, 수자원,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여 공유가치창출을 도모함

[내용]

'글로벌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540만 명을 후원하였고, 남아시아 지역에 184개 청정식수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였으며, 인도 '모가' 지역의 낙농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함

[기대 효과]

영양 및 건강 요인을 토대로 6,692종의 제품을 개선하였고, 2012년 한 해 690만m3의 물을 재활용하였으며, 농촌지역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유 공급망을 구축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원동력이자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단순히 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 아닌 기업마다 상이한 산업 시스템을 고려하여 핵심 역량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회공헌 액션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Community Involvement Efforts Contribute to Business Goals, fall 2015 issue 14, The Corporate Citizen

DBR January Issue 1, 2015, 동아일보사

주요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4, 전경련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권익위, 전경련

진화하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2013, 포스코경영연구소

해외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2013, 삼성경제연구소

기업 사회공헌의 본질: SPIRIT, 2011, 삼성경제연구소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사업과 사회공헌의 조화, 2009,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자원용어사전, 산업자원부

네이버백과사전, 네이버

네슬레 홈페이지

감성메세지

감성메세지

조타(操舵)는 키를 써서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조타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경영에서도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기업윤리'입니다.



One Point Lesson

Q.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가 헛갈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A.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이 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윤리, 고용, 소비자, 환경대책,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측면에도 균형있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행동을 말합니다. 현재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은 광의적 개념으로서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 과정 즉, 구입, 생산, 경영, 판매를 포함한 가치 사슬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입니다. 반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란 하버드대 경영학과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CSR)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가치창출(CSV)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비슷하지만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CSV(공유가치창출)은 자본주의 그 자체로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CSV(공유가치창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진화한 개념이며 기업과 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출처**

DBR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 기조강연, 2012, 동아비즈

산업자원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네이버

이달의 책

서적 리뷰

기업 사회공헌활동, CSR의 이해



저자: 배지양

출판: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15. 2. 25

정가: 19,000원

기업 사회공헌활동(CSR)이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왜 필요한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2년간 CSR을 연구한 저자가 개념부터 역사,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다. CSR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SCM 전략과 실행



저자: 쇼산나코헨, 조지프 루셀 (PwC 컨설팅 옮김)

출판: 서울엠

출판일: 2015. 2. 10

정가: 34,000원

『SCM 전략과 실행』은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SCM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부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KPI, 조직 등을 설계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PwC PRTM 내 SCM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무엇이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다양한 사례 제시로 좀 더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